

새만금 제강슬래그 문제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

윤준병 의원, “환경오염·폐기물관리법령 위반”에
환경부, “합동점검단 운영 pH 측정 등 나서기로
환경표지 인증 매립형폐기물 재활용 법령해석 개선
인증 축소안 마련 체계적인 관리기준 마련할 것”



답을 운영해 pH 측정 등 환경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매립형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령해석을 개선하고,

저지대·연약지반에 대한 시·도지사 인정기준(안)과 슬래그 가공제품(EI744)이 도로기층용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인증을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립형폐기물 환경표지 인증 축소(안)을 마련해 제강슬래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강슬래그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며 “환경부가 제시한 새만금 제강슬래그 제도 개선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이 환경적으로 담보되면서 활성화되도록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새만금 태양광단지 제강슬래그 민·관 합동점검단 운영을 비롯해 제강슬래그 매립형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부지에 건설되는 도로에 반입되는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pH 10~12)을 띠고, 합당분석을 진행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윤 의원은 저지대 연약 지반에 제강슬래그가 사용될 경우 시·도지

사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점과 슬래그 도로 위를 쇄석으로 덮겠다는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 등 새만금 제강슬래그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경에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표지 인증만 받은 폐기물환경성평가를 3천이나 면제받고 심지어 공공기관 납품에 유리한 혜택을 받도록 한 현재 규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강슬래그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기존 폐기물공정시험보다 강화된 토양오염공정시험으로 바꾸고 제강슬래그 폐기물공정시험에서 pH(부식성) 검사 및 생태독성 검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제강슬래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새만금 제강슬래그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새만금 태양광단지 제강슬래그 민·관 합동점검

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예산·추경 심사 완료

문제예산 계수조정 통해 재검토 3조8626억 중 27억 8222만원 삭감
삭감된 22건 중 생태학체험학습장조성, 검토 필요 이유로 삭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인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8626억 2천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3조4249억 9천원보다 4377억원 증가했고, 제3회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 3조 9437억 원에서 308억 원 증가한 3조

9,475억 원이다.

교육 위원들은 지난 23일부터 총 나흘간 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 14개 지원청의 예산안을 심사했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심사를 거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들은 지난 28일 계수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검토됐고, 도교육청이 제출

한 예산안 중 총 22건인 27억 8222만원이 삭감됐다.

이중 생태학체험학습장조성 예산은 학교 내 지속적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교육적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지원청 소관의 생태학습장을 마련해 관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한편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29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국힘, 조직강화특위 위원에

허남주 전주갑 당협위원장 위촉

국민의힘(당대표 이준석)은 지난 25일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허남주 전주갑 당협위원장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지역구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위해 설치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 이남숙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복지관 관계자들 및 이동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주거권 보장 의견 경청

전주시의회, 시 주거정책 아동 참여권 보장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복지관 등 참석

전주시의회는 지난 28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 이남숙 동서학, 서서학 평화(2동)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 및 이동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도출된 아동들의 주거에 대한 의견 및 제안사항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전주시 주거정책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작년 7월부터 ‘집다운 집으로’ 아동 주거 관련 연구 및 토론회 실시, 아동들의 주거 그림·사진 공모전 개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동 의견 제안 활동 등을 진행했다.

강동화 의장은 “아이들에게는 집이라는 공간은 건강 학습 등 전반적인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의 주역인 전주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요양보호사 합격자 2874명 배출

전북도가 지난 6일 시행한 ‘제3회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시험’ 결과, 합격자 2874명을 배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기 교육, 현장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은 나이 제한이 없어 다양한 연령층에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지난 26일 완주 고산휴일장에서 열린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대회에 송하진 도지사 외 안호영 국회의원, 박성일 완주군수, 이학규 한농연중앙회장 노창득 전라북도연합회장등 참석자들이

김수홍 의원 “가상자산 과세유에 반대, 사실무근”

더불어 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본인이 가상자산 과세유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언론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원 측의 입장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자신은 소위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에 대해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김수홍 의원은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

소득으로 변경 하지는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면,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에 시행해 보고 나서 후후에 논의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더구나 김수홍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질의는 가상자산 과세 이전에

가상자산 시장 육성정책을 우선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였다. 김수홍 의원은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과세유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면서 “해당 기지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잘못된 보도를 접하고, 혹여나 오해하시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항상 국민 여러분 편에 서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

제5회 전북 아리울 아버지 합창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자치분권 2.0시대
순창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발효산업의 메카!
장수와 장류의 고장 **순창**

순창군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063)650-1021,1043 fax)063)652-6782
<http://www.sunchangcouncil.go.kr>